

B $\frac{2}{L}$

(1992년)

주 2회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각 학교 여대표자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있습니다!

수신; 전국 각 대학교 여학생 대표자 (총여 회장, 총학 여부장)

발신;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일시; 자주 민주 통일 진군 48년 6월 22일

제목; 전국 여대생 대표자 전진대회 제안서

1. 먼저 느껴지는 것들

‘우리의 자그마한 힘이 모여 끝내는 참평등의 사회가 될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조금은 나약하고 막막한듯 하지만 학우들 속에서 민중속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생활하시는 전국의 여학생 대표자님들께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올초 가슴을 아프게 했던 보은이, 진관이의 사건 속에서, 5월 6월을 거쳐 이제는 뜨거운 거리로 우리를 부르는 한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님들은 서로 비슷한 생각, 고민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늘의 절반은 여성인데, 절반의 여성이 나서지 않으면 뭔가 절름발이 사회로 밖에 안될텐데...’ ‘민주정부 민주정부 하는데, 그럼 민주정부는 여성차별이 없는 사회일까?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만가지 고민들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발전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학교의 여학생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무슨 방도가 없을까? 방중에 보은, 진관 사건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부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주고 참된 삶의 길에 더욱 힘차게 나서게 할까? 이것 저것 후배들, 동료들 고민들 속에서 가슴아프고 답답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학생 회장이다 보니 나 개인의 고민은 또 잘 감추게 되고 갑갑하기만한 여학생운동 속에서 때려 치워 버릴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디 한번 훌쩍 떠나보고도 싶은데 회장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힘만 더 빠지기도 하지요.

많은 여학생 일꾼들이 힘찬 실천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고민 속에만 빠져 있을때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해결할 방도가 없을까 하고 궁리해 봤습니다. 또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방도로써 최선의 방법이지는 않지만 현재의“전여대협”이라는 대표자 협의체 수준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여학생 회장님들이 모여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절실히 제기되는 고민을 총화하여 해결방도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여대표자 전진대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의 의기투합 형식의 그냥 여학 일꾼 모여보기에서 탈피하여 그래도 같은 지위의 여대표자님들이 모여 공감할 수 있는 고민들을 조금은 구체적이면서 깊은 논의로써 의기투합 이상의 것들을 다져내었으면 합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못하지만 대강의 이유들이 있더군요.

1) 여학생운동이 뭔지 잘 모르겠고, 우리들이 단결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요. 아직은 여학생운동의 이념 또한 정식으로 정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념을 공유해 들어가려는 노력 또한 적은 것이 지금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처지에 맞는 우리 사상의 여학생 운동이 정리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계기적 사안이기는 하지만 보은, 진관 사건을 통해 함께 연대 투쟁할 수 있었고, ‘성폭력’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선 풀어가야 할 문제로, 여학운에서 자기 내용으로 하는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대표자 전진대회’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하나라도 우리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모습을 함께 모임으로써 이루어봤으면 합니다.

2) 전여대협이 잘 그너지지 않아요. 내 조직인것 같지도 않는데요.

89년 전여대협(건)이 건설되어 지금까지 4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습이라면 사실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중앙도 없었고 통일적이고 힘찬 투쟁도 없었고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을 테지요.

그러나 우리 운동의 발전은 ‘전여대협’을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여학생들의 투쟁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잘 외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의 여학생이 같은 고민으로 한자리에 모여들고 여학생들의 요구를 높이 외치면서 ‘전여대협’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학생들이 보은, 진관 공판장에 모여들던 모습, 이러한 투쟁 속에서 전대협이 백만학도의 인권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여학우들의 투쟁의 성과이며 여기에 전여대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 힘있게 여학운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여대협이 전여대협 의장, 부의장님을 모시고 ‘전진대회’속에서 우리 조직, 나의조직으로 느껴지게 합시다.

3) 전체 학생회 사업이 너무 많아요. 새가 빠지게 하는데 여학생운동으로 성과가 남지

않아요, 분명 전체운동에 복무해야 하는게 맞는데 말이죠.

앞서 얘기했던 여학운이념, 자기내용이 잘 정립되지 않아 더 심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쉬 지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를 반성해봤으면 합니다.

여학운 이념, 자기내용을 적극적인 실천투쟁으로 스스로 정리해보려고 애를 썼는가 하고요.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전체운동에 복무할 때 소극적이고 단순하게 결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조동투쟁을 할 때 선전은 우리 여학생회가 맡죠.”등으로 굴직굴직한 우리 운동의 사안 속에서 전체가 해야하는 투쟁에 실무분담식으로 사고한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력감으로 자기 한계에 지쳐한 것은 아닌지...

이제 자기 내용을 찾으려는 고민 속에서 전체 변혁운동에 적극적인 투쟁으로 복무합니다. 이때에야 부문운동으로 힘있게 위치지워질 것입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당면 방종의 투쟁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가지로써 정리해보았습니다.)

2. 의의

앞서의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 나왔지만 다시 정리한다면,

1)전국의 여학생대표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고민과 활동방식의 공유로 지위, 역할에 대해 정형을 마련하며 여학생일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2)전국 여학생대표자님들이 모여 여학생운동의 총라를 기반으로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3)여학생대표자님들의 의기투합을 드높여 “전여대협 건설”의 단초를 대표자님들로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4)방종의 투쟁과 하반기 전망을 공유하면서 당면 조동투쟁의 결의를 여대표자님들로부터 내오고자 합니다.

3. 전진대회 일시 및 장소

-일시:자주 민주 통일진군 48년 7월 20일 오후 3시-21일 오후 10시(박 2일)

-장소:남여대협 전남대학교(가안)

4. 프로그램

첫째날(20일):모두 모이는 시간-오후 3시

개회선언-전여대협 부의장

환영사-전여대협 의장

저녁식사

강연(정세) ~ *전남영남 여학생연맹에 관하여*

분임조 구성 및 분임토론(정세, 민개혁 요구안)

둘째날(21일):기상-오전 8시

아침식사 및 세면-오전 9시

토론(당면 조통투쟁 발제 후)-오전 10시-1시

점심식사-오후 1시-2시

망월동 참배 및 분임시간(토론주제:여대표자의 지위·역할, 참된 삶
만약 하라! 이란?)-오후 2시-7시

저녁식사-오후 7시-8시

총화 및 뒷풀이-오후 8시-10시

취침 또는 해산-오후 10시

5. 이렇게 준비해봅시다.

- 1)방중의 많은 일정 속에 어찌면 일이 더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합시다. 바로 여러분이 전여대협 의 대표자들입니다.
- 2)내용의 풍부함은 대표자님들의 결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체적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3)반드시 참가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 4)허비를 반드시 냅시다.
- 5)각 학교에서 모범적인 사업, 사 람이 있으면 보고서 준비로 학산하도록 합시다.
- 6)재미있는 놀이나 전국적으로 학산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 7)각 지구 여대협 의장님께서는,
 - ①각 대학 대표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하방사업을 펼칩시다.
 - ②모범사례, 놀이등을 총라하여 사전에 제출해주세요.

6. 회비는 1인당 원입니다.

10,000

4